

결정적 한방 '실종'...득점권에서 터져야 반등한다

KIA, 득점 생산력 하위권...반등 호기 놓치나

최근 10경기 득점권 타율 0.205 '리그 9위'...병살타만 7개 5할 승률 버터낸 건 마운드의 힘, 타선 살아나야 3위 넘본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치열한 중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위권 도약을 위해선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을 되찾아야 한다.

13일 기준 KIA는 34승 30패 1무 (승률 0.531)로 리그 4위다. 선두 LG와는 6경기 차다. 2위 KT와는 4.5경기 차, 3위 삼성과는 2경기 차다. 반면 5위 한화와는 1경기 차에 불과하다.

최근 10경기 성적은 5승 5패다. 순위를 지키고 있지만 상승세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발목을 잡는 건 득점권 기록이다.

올 시즌 KIA의 득점권 타율은 0.261로 리그 7위다.

시즌 전제로는 중위권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하락세가 뚜렷하다.

KIA의 득점권 타율은 시즌 초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다. 3-4월 0.270으로 리그 5위였다. 5월에는 0.273을 기록했지만 순위는 7위로 내려앉았다. 6월 들어서는 0.202로 리그 최하위까지 떨어졌다.

최근 10경기 기준으로도 0.205에 그치며 9위에 머물렀다. 득점권 안타는 17개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적었다. 시즌 초 중위권 수준이던 생산성이 최근 들어 하위권으로 밀려난 셈이다. 마운드는 탄탄하다.

KIA의 올 시즌 팀 평균자책점은 3.98로 리그 1위다.

투수진은 꾸준히 제 몫을 해내고 있다. 공격에서 조금만 힘을 보탠다면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선구안은 유지되고 있다.

최근 10경기 KIA의 득점권 타석 수는 97차례다. 득점권 볼넷율(BB%)은 11.3%로 리그 3위다. 삼진율(K%) 역시 19.6%로 전체 4위다. 조금하게 방망이를 돌리며 스스로 무너진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중심타선도 제 역할을 했다.

3-5번 타선의 득점권 타율은 0.360으로 리그 3위다. 득점권 장타율도 0.800으로 리그 두 번째로 높다. 중심 타자들의 방망이가 막혔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눈에 띄는 대목은 따로 있었다.

병살타다.

KIA는 최근 10경기에서 득점권 병살타 7개를 기록했다. 리그에서 가장 많다. 상위권 팀인 LG



KIA 마무리 투수 성영택이 지난 13일 열린 두산과의 홈 경기에서 팀의 2대1 승리를 지켜낸 후 포수 김태군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1개), KT(3개)와 비교해도 두드러지는 수치다. 그만큼 병살 하나로 흐름을 놓치는 장면이 적지 않았다.

지난 6일 삼성전과 10일 한화전은 모두 1점 차 패배였다. 접전과 추격 상황에서 나온 병살타는 공격의 맥을 끊었다.

여기에 운이 따르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

득점권 BABIP은 0.213으로 리그 최하위다. 인플레이 타구가 안타로 연결되는 비율도 낮았다. 타구 운이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KIA의 고민은 득점권 기록이다. 기회를 만드는 과정은 유지되고 있다. 중심타선의 생산력도 살아 있다. 하지만 찬스에서 안타

가 부족했고 병살타도 적지 않았다. KIA가 좀처럼 치고 나가지 못한 이유다.

결정적인 순간의 아쉬움이 순위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순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타선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득점권에서의 한 번의 집중력이 순위를 바꿀 수 있다. /주홍철 기자

14일 두산전 올 시즌 22번째·홈 12 경기 연속 매진

KIA, 구단 최다 연속 매진 신기록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구단 홈경기 연속 매진 기록을 경신했다.

KIA는 1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오후 4시를 기해 2만500석의 입장권을 모두 판매했다.

올 시즌 22번째 매진이자 홈 12경기 연속 매진이다. 이는 KIA 구단 역사상 최다 연속 매진 신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2024년 9월7일 광주 키움전부터

2025년 3월23일 광주 NC전까지 이어진 홈 11경기 연속 매진이었다.

이날까지 홈 34경기에 62만704명이 입장해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8천258명을 기록했다.

한 시즌 최다 매진 기록인 30경기(2024년)까지는 8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KIA 주장 나성범은 "팬 여러분들께서 챔피언스 필드를 항상 가득 매워 주셨기에 선수단 모두가 힘내서 경기에 임하고 있다. 언제나 팬



14일 전석 매진을 알린 전광판. <KIA 타이거즈 제공>

분들과 함께 한다는 팬 퍼스트 정신과 최상의 경기력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주홍철 기자



전남주 광주시체육회장이 14일 어르신 건강체육대회가 열린 진월국제테니스장을 찾아 참가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스포츠로 활력 충전...건강 100세 시대 '활짝'

광주시체육회, 족구 등 6개 종목 '어르신 건강체육대회' 개최

건강한 노후·활기찬 여가문화 조성, 소통하는 축제의 장

광주시체육회가 빛고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6 어르신 건강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각 종목단체가 주관하며, 광주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몸, 밝은 마음, 활발한 사회생활'을 실천하며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의미 있는 생활체육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체육회는 매년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에 열리는 대회만큼 올해는 한층 더 알찬 종목 구성과 안전한 경기 운영으로 어르신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대회는 14일 족구(하남스포츠포크), 탁구(동림다목적체육관), 테니스(진월국제테니스장)를 시작으로 27일 체조(북구청소년수련관), 레크리에이션(동림초등학교)에 이어 다음달 당구(빛고을노인건강타운 당구장) 종목이 개최될 예정이다.

종목별 참여 인원은 체조와 탁구가 각각 220명으로 가장 많고, 레크리에이션 170명, 테니스 150명, 당구와 족구는 각각 120명이 참가한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동호인 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안전 및 응급 의료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남주 광주시체육회장은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노후와 활기찬 여가문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참가자 모두가 활력을 얻고 서로 소통하는 행복한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체육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 파트너로서 활기찬 삶을 위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희중 기자



손흥민이 지난 12일 열린 체코와의 경기에서 회심의 솜씨 체코 골키퍼에게 막히자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경기 체코전 투혼 빛난 손흥민

"대기록은 멕시코전에서 쏜다"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캡틴' 손흥민이 자신의 네 번째 월드컵 첫 무대에서 분전했지만 신기록 달성은 다음으로 미뤘다.

손흥민은 지난 12일 열린 체코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해 약 69분간 그라운드를 누르고, 후반 24분 오현규와 교체돼 벤치로 물러났다.

현재 손흥민은 월드컵에서 통산 3골을 기록 중이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공격을 이끈 손흥민의 존재감은 그라운드 위에서 여전히 묵직했다.

체코의 장신 수비진을 상대로 특유의 가벼운 몸놀림을 보이며 빈틈을 엿보았으나, 상대의 촘촘하고 집중적인 견제 속에 어렵게 결정적인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날 팀내 최다인 6차례 슈팅을 시도하며 매섭게 체코의 골문을 위협했다.

전반 12분 이재성이 살짝 뒤로 내준 패스를 지체 없이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수비수 발에 맞고 굴절돼 높게 뜨며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38분에는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 골대 위로 살짝 땀고, 불과 1분 뒤 박스 안으로 파고 들어 가까운 포스트를 노린 날카로운 원발 슈팅도 골문을 살짝 위협했다.

순위	팀	승	무	패	득점	실점
1	멕시코	1	0	0	2	3
2	한국	1	0	0	1	3
3	체코	0	0	1	-1	0
4	남아프리카공화국	0	0	1	-2	0

차수	날짜	시간	팀	득점	팀	득점
1차전	6월 12일	04:00	멕시코	2	남아프리카공화국	0
2차전	6월 19일	11:00	한국	2	체코	1
3차전	6월 25일	10:00	체코	-	멕시코	-
		10:00	남아공	-	한국	-

후반 11분에도 이재성이 원터치로 내준 공을 잘 잡아두고 날카롭게 침투해 다시 한번 골망을 겨냥했지만 이번에도 타이밍 좋게 치고 나온 마테이 코바르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혀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비록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골 맛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루 앞서 "월드컵 매 경기는 선수로서 인생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경기"라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던 캡틴의 각오는 굳건하다.

한국 축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향한 손흥민의 네 번째 월드컵 도전은 이제 다음 경기를 정조준하고 있다. /연합뉴스